

Date: 19 Elul 5786 (September 1, 2026)

Torah Portion: Vayelech

Topic: 의로운 후회

신명기 31 장 14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날이 죽을 날이 가까웠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토라에서 가장 엄숙한 순간 중 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40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죽음이라는 문턱에 섰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대화하고, 토라를 선물 받았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광야에서 백성의 짐을 충실히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육신을 입은 사람의 삶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음을 깨 달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인간의 삶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날들도 모든 사람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드라쉬에 따르면, 랍비 시몬은 어느 날 죽음의 천사를 만났는데, 그 눈에는 천사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랍비 시몬은 천사에게 “당신은 누구시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천사는 “인간의 주제넘은 대화에 분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면서도 몇 달, 몇 년 후에 이루려고 하는 일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이 포도주를 자식의 결혼식을 위해 숙성시켜야겠다”라고 말한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아버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자식은 30 일 안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에서의 교훈은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 자체가 이미 예지력, 준비, 파종, 건축, 자녀 교육,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철저한 토라 가르침의 전수를 위하여 준비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사람의 내면에 내일이 우리 것이라는 착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때까지 살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현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미래에 대한 그 생애의 펼침과 인도하시는 주권은 지존자이신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 시몬은 죽음의 천사에게 “제가 죽을 때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나 당신과 같은 의인들을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때로는 거룩하신 여호와 엘로힘께서 당신이 행하고 있는 선행을 더 원하셔서 당신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0 장 27 절의 말씀이 이 증거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들은 그러므로 연장된 수명을 단순히 기간을 오래 사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므로 여호와 엘로힘의 영원하신 왕국을 “오늘”에 있어서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특혜로 여깁니다.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남은 매일의 삶 속에 회개, 토라, 미츠보(계명 준수), 선행, 기도,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우시고 광대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찬미 올려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탈무드 (모에드 카탄 25b)는 의로운 영혼의 떠남이 여호와 엘로힘 앞에서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미드라시는 의인의 죽음을 거룩하신 분께 어려운 일이라고 묘사하는 것일까요?

샤아레이 심카는 의로운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보상을 잃는 데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주목합니다. 오히려 의로운 영혼은 육에 있었을 때 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빛의 영적

현실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려움은 “물리적 행위의 세계”를 떠나야 하는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의 고뇌에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삶 속에서만 사람은 회개하고, 순종을 선택하며, 미츠보 (계명)를 행하고, 유혹을 이겨내며, 자선을 베풀고, 친절을 나타내고, 토라를 공부하며, 평범한 행위들을 거룩한 행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쉬나가 표기해 놓은 긴장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시간 동안 회개하고 선행하는 것이 내세의 전 생애보다 낫고, 내세에서 한 시간 동안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전 생애에서 느꼈던 행복보다 낫다” (필케이 아흐볼 4:17). 곧, 내세는 영적인 기쁨에 있어서는 육신들이 느끼는 이 세상의 기쁨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내세의 영원의 세계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 그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세에서는 영혼이 받아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혼이 세웁니다. 내세에서는 열매를 즐기지만, 이 세상에서는 씨앗을 심습니다.

위의 설명은 모שה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인들은 모שה가 단지 그 땅의 열매를 먹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음에 위하여 들어가기 원했는지 묻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모שה는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하신 계명들이 내려졌는데, 그 중의 많은 계명들은 오직 그 땅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계명들을 이루겠습니다” (소타 14a). 그러므로 모שה가 더 오래 살기를 바란 것은 단순히 죽음을 미루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계명 순종을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모שה는 더 많은 시간이란, 곧, 여호와와 뜻을 더 깊이 성취할 기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육의 옷을 입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이 '빌나 가온(Vilna Gaon)'의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자신의 '치치트 (tzitzit, 옷자락에 달린 술)'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물리적인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적은 돈으로 치치트를 구하고, 비교적 간단한 '미츠바 (mitzvah, 계명)'를 준행함으로써, 여호와 엘로힘께서 주신 한 명령을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그런 기회를 간절히 원한다 해도 더 이상 얻을 수 없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은 동안에 세울 수 있는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겨진 엄청난 영적 가치를 각 층마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샤아레이 심카(Shaarei Shimcha)'는 의인에게 “예비된 상급”의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 엘로힘께서 의인의 영혼을 거두어 들이시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묘사되는 이유는, 여호와 엘로힘께서 그분을 계속 섬길 기회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의인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그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시편 91 장 15 절에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서는 또한 그 생명이 여호와 엘로힘께 다시 온전히 드러질 때 얼마나 귀한 것이 되는지를 이해하십니다.

따라서 모שה에게 하신 말씀, 곧 “보라,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단지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높고 깊은 이상의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은 날들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향한

감격의 간절함과 열정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허락된 정확한 시간이 몇 십년인지, 몇 년, 몇 달, 혹은 며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각각의 질문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의인은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매일이 영원조차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삶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소홀히 한 계명은 내일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룬 사과는 영영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일을 뒤로 미루면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공부하지 않은 토라(Torah)는 끝내 배우지 못한 채로 못 맺게 됩니다. 끊임없이 미루는 회개는 아직 약속되지도 않은 '내일'을 당연히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태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될 그 한 정점을 앞둔 모세의 모습은 아무리 위대한 삶이라도 그 영혼의 시간이 육신의 공간적 처소를 떠나게 되는 한 때에 도달했음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더 깊이 깨우칠 수 있고 배워야 할 창조주의 말씀 여호와와 토라, 실천해야 할 미츠보트 (계명들), 바로잡아야 할 잘못, 베풀어야 할 친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거룩을 통하여 순전한 기름을 육신에 담아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날의 숫자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육신과 하나되게 하시면서, 맡겨주신 "그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채우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를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샬롬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39:4, 다윗의 간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 90:12, 모세의 간구).